

# 출근길 도심 하늘 덮은 검은연기 '깜짝'

### 어제 오전 화북공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창고 화재 동일신고만 130여건... 소방본부, 대응 1단계 발령 창고 4개 동 전소 피해... 인근 도로 차량정체 극심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 3시간만에 진화됐다.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치며 화재 목격 신고만 130건 이상 들어왔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화북2동 화북공업단지 내 모 자동차 부품 대리점 창고에서 일어난 큰 불이,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다.

이날 불은 2~3층 짜리 829㎡ 규모 창고 5동 중 4개 동을 태우고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 주택 여러 채가 있어 자칫 더 큰 피해를 낼 뻔 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히는 한편,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펑' 소리와 함께 큰 불길이 치솟았다고 증언했다. 또 주민 10여명이 대피했으며 이들은 거센 불길이 쫓겨온 채를 태웠다.

주민 김모(77)씨는 "아침에 '쿵' 울리는 소리에 놀라 '교통사고가 났나' 하고 밖에 나왔더니

바로 옆 건물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고 있었다"면서 "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연기가 우리 집을 향해 덮쳐오기 시작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곧바로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위협할 수 있으니 집에 들어가 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다른 주민 양모(72)씨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펑' 하는 소리에 집 안이 울렸다"면서 "놀라서 급히 집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휴대폰도 아무것도 못 챙기고 목만 빠져 나왔다. 쉽게 불길에 잡히지 않아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을 정도로 거셌다. 검은 연기도 함께 솟구쳐 공업단지에서 수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랐다. 이날 소방당국이 접수한 동일

화재 신고만 136건이다.

또 제주도가 시민들에게 화재 현장을 우회해 운전할 것을 권고하고, 출근시간까지 겹치면서 화북공업단지 인근 주요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큰 불에 관할 소방서 인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39대, 소방·구급대원 등 156명이 동원됐으며, 주로 산발 화재 진화에 나서는 소방헬기까지 투입됐다. 김채현기자



11일 오전 제주시 화북1동 화북공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대리점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 도내 보건소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 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의료 불편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보건기관은 제외됐었다.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보건기관 소속 공중보건과의사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 진료기관 파견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 3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지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제주지역은 9일부터 운영 중이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경증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상담과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된 약은 환자가 지정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한편 보건소 비대면 진료 상담·안내는 제주보건소 728-4016, 서부보건소 728-4114, 동부보건소 728-4179, 서귀포보건소 760-6015, 동부보건소 760-6174, 서부보건소 760-6252에서 가능하다. 김도영기자

### 글로벌 역량학교 지정·운영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글로벌 역량학교를 올해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역량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제주남초, 저정초, 인산초, 창천초 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역량학교에서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시 협력 수업 운영을 진행한다. 강다혜기자

## 4·10 총선 제주 선거사범 11명 적발

### 제21대와 비교해 5명 ↓ '허위사실 유포' 4명 적발

제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선거사범 16명과 비교해 31.2%(5명) 감소한 수치이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 운동이 각 1명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 신속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추하·위로·담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음주단속 경찰 다치게 하고 도주한 공무원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제주시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을 마신채 제주시 도남동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제지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달아나 차를 세우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봄철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제주소방서는 봄철 나들이,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등을 진행한다.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입야화재 162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쓰레기 및 논·임야 소각이 34.5%(56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담배 19.1%(31건), 비화 9.2%(15건) 순이었다. 올해 1~3월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 건수가 35건으로 집계되며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출동 193건 중 18.1%의 비율을 기록했다.

서주소방서는 상습 소각행위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이용해 단속과 함께 예방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채현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b>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b>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원터프린스 / 탐나는봄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론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b>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b>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b>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b>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b>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b>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b>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b>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b>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b>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b>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b>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행사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도묘목 분양**

[경력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도묘목 공급]

**포도묘목?**

▶ 전무리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무리형상이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홍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봄 / 하례조생 / 사라향 / 제라론 / 미니향

푸른지개경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공인된 품종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개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도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봄
● 미니몬	● 제라론

**※ 포도묘목** 생과들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인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공인된 품종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인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